

현대미술가와 뮤지션의 특급 콜라보

‘아트아시아’ 22일 킨텍스에서
 2018 현대미술 3000점 선보여

대중음악이 현대미술과 손잡고 미술관을 넓히고 있다. 선두에는 스타 작곡가 김형석(52)이 있다. 이미 2년간 팝아트와 파인아트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와 매니지먼트를 서포트하는 예술매니지먼트 회사 팝앤팝아트팩토리를 설립했다. 찰스장 이세현 하태임등 100여명의 미술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K-POP 아이콘 작곡가에서 K-아트까지 넘보는 건, 디지털 시대 ‘생존 마케팅’이다. “음악도 음악 하나로 자생하기 힘든 시대, 미술과 연계해서 길을 터 대중, 특히 젊은층에 다가서겠다”는 전략이다.

김형석 작곡가는 “지금 가요시장도 아이돌 외에 나머지 뮤지션들이 설 무대가 없다”면서 “2년간 팝아트 작가와 뮤지션의 공연을 시도해봤는데 재미있었다.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의 만남은 ‘사운드 아트’ 개념의 새로운 장르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다. 오는 22일 개막하는 ‘아트아시아2018’ 총연출로 참여 ‘A-STAGE’를 펼친다.

현대미술 작가와 K-POP 뮤지션의 콜라베이션 공연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다. 행사장에 특별 무대를 마련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음악과 미술이 합체된 무대를 선보인다. 예술과 예술의 만남으로 미술 작품 탄생과정과 작가들의 에너지를 눈앞에서 직접 살펴볼수 있는 진기한 시간이다.

김형석 총연출은 “미술일을 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도 신바람난 분위기다. 그는 “처음 해보는 것들이어서 막막했었는데 막상 작가들과 미팅해보니 작가들도 즐거워하고 아이디어가 샘솟더라”면서 아트아시아를 통해 새로운 작품 과정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이 스스로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



K-POP 스타 작곡가 김형석이 국내 처음으로 대중음악가와 K-아트가 협업한 신개념 아트 콜라베이션 공연을 시도한다. 오는 2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하는 ‘아트아시아 2018’에 총연출로 참여한 ‘A-STAGE’를 펼친다.

‘A-STAGE’는 행사 기간 매일 펼쳐진다. 사진과 퍼포먼스 아트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가 고상우와 작곡가 김형석, 그리고 전자댄(노건호), ‘음원강제’ 헤이즈의 음악과 어우러지는 젊은 페인팅 작가 임정아와 공연, 사진 이미지를 사진 풀러주, 설치, 영상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변용하는 작가 이지연과 하림, 한호 작가와 ‘로맨틱 카우치’의 멤버이자 작곡가인 전자댄의 공연이 이어진다.

미술행사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미술과 음악의 화려한 만남으로 일반 대중들이 예술에 쉽게 다가서는 한편, 작가홍보와 함께 작가들의 무대도 확장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공연이 끝나면 ‘북 콘서트’처럼 작가와 관객과 함께하는 작품 설명도 열린다.

김형석 연출은 “무대도 6각형으로 제작 다양한 각도에서 미술과 음악의 열린 퍼포먼스를 경험할수 있게 한다”며 “이번 공연에서는 관

람객이 자기발전 자전거를 돌려 동력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을 함께 나눠볼 수 있어 어렵다고 생각하는 현대미술에 참여하고, 스스로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소통의 예술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아트아시아 2018’은 작품만 판매하는 미술장터에서 탈피한 ‘미술축제’ 같은 아트페어로 펼쳐진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 5홀)에서 열린다. IT업체인 (주)휴로 인터랙티브가 주관한다.

정원철 (주)휴로 인터랙티브 대표는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아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신개념 아트페어”라며 “아트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아트페어를 모은 초대형 복합문화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모은 3000여점을 선보인다. /뉴스

국립전주박물관, ‘조선 선비문화’ 활성화 앞장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학호남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공동 학술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은 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과 ‘조선 선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각 기관에 소장한 자료를 공유하고 전시에 활용하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전시·연구를 위한 자료대여에 협조하고, 상호 공동 연구·학술 세미나 개최 등 학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전주박물관은 각 기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전국의 고서·현판·책판 등을 수집·보존하고 DB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고서·고문서 등을 수집·보존하고 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박물관은 그동안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과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진전 ‘부성서원에서 선비정신을 묻다’와 학술대회



‘조선 선비문화와 호남’을 개최하는 등 조선 선비문화를 폭넓게 조망하고자 노력해 왔다. /뉴스



‘박소연의 거문고병창놀이’가 오는 17일 국립민속국악원서 펼쳐진다.

‘박소연의 거문고병창놀이’

17일 국립민속국악원서 춘향가·심청가 등 다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상설 공연인 2018토요국악초대석 국악타파의 일환으로 ‘박소연의 거문고병창놀이’를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펼친다.

거문고병창은 가야금병창과 마찬가지로 거문고 연주에 노래를 얹어 부르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연을 펼치는 거문고 연주자 박소연씨는 제29회 대구국악경연대회 기악부문 명인부 대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으로 독주회와 정규앨범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판소리 춘향가 중 기

생점고~돈타령, 심청가 중 황성 맹인 잔치 가는 대목~방아타령, 적벽가 중 새타령과 단가 팔도유랑가 등 총 4곡의 거문고병창 대표곡과 이를 놀이관으로 꾸며줄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며, 멋스러운 한판을 펼쳐줄 퍼포먼스에 흥상진(연출가), 최아름(무용가)씨가 함께 한다.

토요국악초대석은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며 전화(063-620-2324~5) 및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추가 후) 대화 요청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실학의 발생지 부안군, 오늘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안군은 오늘부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주최하고, 국사편찬위원회가 후원하며, 한국실학학회(회장 하우봉)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그동안 부안군은 호남실학을 재조명하고 반계 유형원 선생의 실학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1회 반계 유형원 선양사업(2012), 제2회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과 계승방안(2013), 제3회 반계 유형원의 저술을 통한 계승방안(2014), 제4회 반계 유형원과 호남실학·교류와 전승(2015), 제5회 국제적 시각에서 본 반계 유형원의 실학사상(2016), 제6회 반계유형원과 동아시아 초기실학(2017)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금번대회는 이제까지 연구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반계 실학이 나아갈 길을 검토하기 위해 ‘반계실학의 현재적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준비했다. 크게 3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1박2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제1부 ‘반계학과 호남실학’이란 주제로 호남실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5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2부 ‘신실학의 개념과 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원 회원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윤사순 선생의 신실학의 의미와 구성방향이던 주제의 기초강연과 이현창 고려대 교수의 실학의 개념과 학술사적 현재적 의미의 기초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집담회 형식으로 신실학에 대해 개념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부에서는 ‘신실학의 모색’이란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실학’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추구하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반계 유형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부안에서 시작된 실학이 현재적으로 재조명 되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시작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이복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